

##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 개발

성 슬 아

다음심리상담센터  
상담심리사

배 성 훈<sup>†</sup>

꽃동네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연구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5가지 영역, 총 42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후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전문가들에게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고, 그 결과 4가지 영역 총 20개로 된 최종 문항을 도출하였다. 최종 문항은 심리상담사(N=306)에게 제공되었고, 수집된 설문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2요인이 확인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2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은 각각 '정보의 수집과 활용'과 '정보의 조직과 연계'로 명명되었으며, 척도는 공인 타당도,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심리상담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척도는 Wee클레스나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그 외 상담 현장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심리상담사, 지역사회자원연계, 신뢰도, 타당도, 척도 개발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배성훈, 꽃동네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삼삼길 133 / Tel: 043-270-0171, Fax: 043-270-0120, E-mail: koimura@kkot.ac.kr

최근 들어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는 그만큼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갈등을 낳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일하는 분야나 인간이 직접 일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활용하려고 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김혜미, 오인수, 2016; 이용주, 박근영, 2018). 복잡한 사회만큼 개인의 생활양식도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들이 가진 심리적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경제, 직업, 진로, 여가, 건강 등까지 확장되고 있다(구장희, 안도희, 2015; 박지혜, 하정희, 2020; 최은숙, 전경숙, 2016; 홍나미, 2013). 이로 인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개인 수준에서만 처리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이전보다 복잡해진 환경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중복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박영순, 김윤희, 조민석, 2019; 이병환, 강대구, 2014; 정현주, 2015). 아동과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는 방임, 가난, 소외, 건강 등 학생이나 부모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격차, 교육 혜택의 차이, 부모님의 맞벌이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같은 복합적인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암미, 안도희, 2015; 조현경, 김재철, 2014). 이에 학교의 심리상담 역시 학생의 또래 관계 문제나 진로, 학업, 정체성 문제만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영역 전문가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다(윤하연, 2016). 이는 학교의 심리상담이 이제 상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외 교육기관, 보육 시설, 복지 시설, 의료 시설,

그 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용 시설과 그 전문가가 학생의 문제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들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 또는 내담자를 도와왔다. 다만, 그들의 업무는 자원 연결과 그것의 효과를 돕는 사례관리로, 심리상담 업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박미진, 현안나, 2017). 반면, 심리상담사들은 지역사회 내 자원의 개발과 연계보다는 개인의 내적 과정에 더 관심을 두고, 심리적 안정감, 적응 행동 향상에 더 중점을 둔다. 두 영역은 하는 일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담자(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두 영역의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것이 당면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즉, 상담과 사회복지 기술이 내담자(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모두 사용될 수 있다면, 보다 빠르고 현명하게 내담자(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심리상담사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용하는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역 내의 생활 그 자체를 의미한다(김연순, 민혜리, 이영, 2018). 지역사회자원이란 지역사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상을 돕기 위해 지역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인적·물적·제도적 자원과 정보자원을 말한다(김지연, 2001; 이은하, 한희영, 서인국, 유미숙, 2017). 지역사회연계의 범위는 상담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조직들이 폭넓게 포함된다(임은미, 2014;

Cox & Lee, 2007).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현장에서 지역사회자원연계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인적·물적·제도적 자원과 정보자원의 활용이라 볼 수 있겠다. 지역사회자원연계는 내담자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내담자를 둘러싼 환경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담자가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임은미, 2014).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자원연계가 강화될수록 내담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 다양성, 자원 이용성은 향상되고 내담자의 문제도 더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연계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점은 2006년이다. 당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를 만들었고, 전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립해 지역 내 청소년 심리상담을 주도해 왔다(손병덕, 2015).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심리 상담은 교육부가 만든 Wee 프로젝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CYS-Net은 위기청소년에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연계한 사회안전망으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서비스뿐만 아니라 보호·의료·복지·진로·취업서비스 기관들과 연계되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손병덕, 2015). 이 과정에서 CYS-Net과 학교는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평가하고 의뢰할 수 있으며, 연계 기관들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학교 내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권해수, 류진아, 2007).

즉, CYS-Net의 체계와 업무 과정은 심리상담 영역에서도 사회복지와 같은 자원 연계를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YS-Net모델과 같이 주변 자원을 활용한 치료적 접근의 성공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 외 다른 많은 국내 연구들에서도 지역사회자원의 연계적 접근이 심리상담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권해수, 류진아, 2007; 김동일 등, 2008; 류진아, 권해수, 2008; 옥정달,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박예술, 2018; 홍나미,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사회연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상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장애학생과 같은 특수 치료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나 학교폭력 문제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김희은, 고혜정, 김동일, 최수미, 2019; 박성현, 화순영, 장우영, 2013; 임은미, 2014).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연계가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대부분의 심리상담사들이 지역사회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담 심리 학사나 석사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자원의 종류와 자원의 양, 사용 방법,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가 거의 없다.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거나, 주로 공기관 같은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볼 수 있는 보고서 형태의 매뉴얼을 보았을 때와 같이 매우 제한적이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심리상담사가 일하는 지역의 지역사회자원 목록과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활용 능력을 명확히 파악하여 무엇이 부족한 지 평가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그중 두 번째의 내용은 평가 척도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심리상담사들의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을 적절하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 구성요인과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학습자의 능력치와 부족한 분야에 따라 모듈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평가 도구의 존재는 교육의 효과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사회자원연계 척도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학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척도이며 주로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김성옥, 2008; 김지연, 2001; 김태섭, 2016; 배경희, 2006; 배현순 2019; 어운강, 2014; 윤하연 2016; 이강, 2004; 이종운, 2016; 이현숙, 2005; 장성태, 2003; 정성기 2002). 기존의 척도들과 심리상담 입장에서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기존의 척도를 그대로 쓰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척도개발의 참여자가 대부분 사회복지사였다는 것, 이에 심리상담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 둘째, 기존 척도들은 사회복지 특유의 자원 연결 업무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셋째, 대부분 척도들이 양적으로 수치화되어 있지 않아 연계능력의 비교, 변화, 상태를 명

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 넷째, 특정 기관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비교적 심리상담사들에게 적용 가능한 기존 척도로는 이종운(2016)과 윤하연(2016)의 척도들이 있다. 그러나 이종운(2016)의 척도는 그 내용이 조직 목적 달성이나 진실성, 정직성, 윤리성, 법적 내용, 품행 및 처신, 모금활동, 홍보전략, 기부자에 대한 태도 등 심리상담사들에게 불필요하거나 자원연계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윤하연(2016)의 척도 역시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문항이 많아 심리상담사들에게 해당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태이다. 이는 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사회자원연계’라는 것을 주제로 척도화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며, 종종 외국의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지역사회연계척도’라고 검색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연구에 맞게 수준을 정의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파악하기에는 문항수가 적고 내적 일관도도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다(DeBord, Jakes & Guin, 2010; Malcolm, Shellman, Elwell, & Rees,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심리상담사가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의 개발에 있어서 요구되는 태도, 기술, 지식 등의 역량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 수준의 현황과 그 관련 요인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적·실천적 논의를 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는 Wee 클래스, Wee 센터와 같이 주변의 많은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아동, 청소년 상담 장면에서 유용하게 사

표 1. 선행연구 분석

저자	지역사회자원연계의 정의	지역사회자원연계 척도의 구성요인(문항 수)	심리상담자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김성옥(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학생, 학부모의 문제해결을 위해 두 개 이상의 다른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상호 의뢰하거나 자원과 정보 및 서비스를 공유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적, 지속적,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자원 유형별 연계 정도와 필요도(12)</li> <li>• 연계과정(10)</li> <li>• 연계 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요도(9)</li> <li>• 연계에 따른 영향(10)</li> <li>• 연계 시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14)</li> </ul>	<p>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사회 복지 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심리상담사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p>
김지연(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조직들</li> <li>• 지역사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가족과 학생을 격려하고 돕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역성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인적·물적·제도적 자원, 정보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사회복지의 일반적인 특성(12)</li> <li>•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수행도(17)</li> <li>• 지역사회자원 연계상의 특성(47)</li> </ul>	<p>학교사회복지의 이론적 실천 모델에 기초하여 구성된 설문 이므로 상담 영역 전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p>
김태섭(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을 지원하는 제공자와 이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원을 지원 받는 수혜자 간의 교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효과성(16)</li> <li>• 체계적 요인(12)</li> <li>• 투입요인(4)</li> <li>• 협력 가능성(4)</li> </ul>	<p>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 영역 전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p>
배경희(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려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사람이나 사회제도, 즉 사회와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기여 할 수 있는 모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자원 유형별 연계 정도와 필요도(14)</li> <li>• 연계 과정(14)</li> <li>• 연계 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요도(10)</li> <li>• 연계에 따른 영향(10)</li> <li>• 연계시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12)</li> </ul>	<p>연구자가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실무경험을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심리상담사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p>
배현순(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연적, 사회적 자원과 재화와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4)</li> <li>• 자원교환(13)</li> <li>• 정보교환(10)</li> <li>• 대상자 의뢰(5)</li> </ul>	<p>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상담 영역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p>
어운강(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에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상자를 의뢰하거나 협조·요청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이언트 의뢰*</li> <li>• 자금동원*</li> <li>• 공동협의*</li> <li>• 공동프로그램 운영*</li> <li>• 지역사회 자원환경(3)</li> <li>• 자원보유정도(4)</li> <li>• 지역사회활동 참여 여부(3)</li> <li>• 개인친분 형성정도(3)</li> </ul>	<p>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제작된 설문으로 심리상담사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p>

표 1. 선행연구 분석

(계속)

저자	지역사회자원연계의 정의	지역사회자원연계 척도의 구성요인(문항 수)	심리상담자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윤하연(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다른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상호 의뢰하거나 자원과 정보 및 서비스를 공유하여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적, 지속적,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장 요인(17)</li> <li>기관요인(10)</li> <li>자원연계활성화 정도*</li> </ul>	지역아동센터에서 적용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원 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 영역 전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강(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의 개념을 연계체계의 수준의 종류를 연락(communication), 조정(coordination), 협력(collaboration), 통합(integration)으로 분류하여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체계 연락수준(5)</li> <li>연계체계 조정수준(6)</li> <li>연계체계 협력수준(8)</li> <li>연계교육, 자원의존도, 사업내용인지도, 연계방법, 연계모임 형태, 연계 방해요인(9)</li> <li>연계체계 수립전략(8)</li> </ul>	지역사회정신보건조직에 적용하기 위해 제작한 설문으로 상담 영역 전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현숙(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된 조직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환관계를 다루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종교기관, 기업체 등과의 정보교류, 인적자료 교류로 구성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활동 여부(1)</li> <li>서비스대상자의 의뢰여부/물적자원교류(1)</li> <li>정보교류/인적자원교류(1)</li> <li>교육훈련교류/공동협의·조정교류(1)</li> <li>연계활동의 도움여부(2)</li> <li>연계활동의 어려움(1)</li> <li>연계활동 담당자(1)</li> <li>연계활동 경로(1)</li> </ul>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자원연계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 상담 영역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장성태(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그리고 정보지원체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요인(7)</li> <li>조직요인(16)</li> <li>지역사회요인(3)</li> <li>자원연계수준(8)</li> </ul>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설문으로 심리상담사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
정성기(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관리 기법으로 서비스 조정자를 중심으로 서비스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자연계 실태(9)</li> <li>보건기관과의 연계실태(12)</li> <li>응답자의 일반사항(8)</li> </ul>	부천시지역의 사회복지관연기관 및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설문으로 심리상담사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움
이종운(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개발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내면의 가치, 태도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행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개발역량 가치(10)</li> <li>자원개발역량 태도(16)</li> <li>자원개발역량 기술(16)</li> <li>자원개발역량 지식(11)</li> </ul>	사회복지사가 개발해야 하는 자원개발역량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상담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 연계 능력 척도를 제작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 예비척도 개발

본래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주 사용해왔던 용어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역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역량이란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요인으로 개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사용 기술을 의미한다(이중운, 2016). 그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자원 연계가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한국의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들이 특정 학술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심리상담 영역에서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직접 다룬 국내 연구를 직접 찾아봤을 때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들은 예비 문항의 기초를 사회복지영역에서 찾았고, 문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출판시기 범위도 폭넓게 잡았다. 문항이 분명히 제시된 선행연구를 찾기 위해 전문학술지와 학위논문이 동시에 존재하는 연구들을 찾았으며, 그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관된 총 12개의 유사 연구가 선정되었다(김성옥, 2008; 김지연, 2001; 김태섭, 2016; 배경희, 2006; 배현순 2019; 어윤강, 2014; 윤하연 2016; 이강, 2004; 이중운, 2016; 이현숙, 2005; 장성태, 2003; 정성기 2002). 12개의 핵심 선행연구 중에서 문항의 유용성과 심리상담사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9개의 연구(김성옥, 2008; 김태섭, 2016; 배경희, 2006; 배현순, 2019; 어윤강, 2014; 윤하연, 2016; 이강, 2004; 이중운, 2016; 장성태, 2003)가 다시 추려졌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9개의 연구는 자원 파악, 수집, 연계, 인프라 구축,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명료하고 분명한 척도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었다. 이후 9개의 연구에서 수집한 문항들을 상담심리 영역에 맞게 수정한 후,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 3문항, ‘정보관리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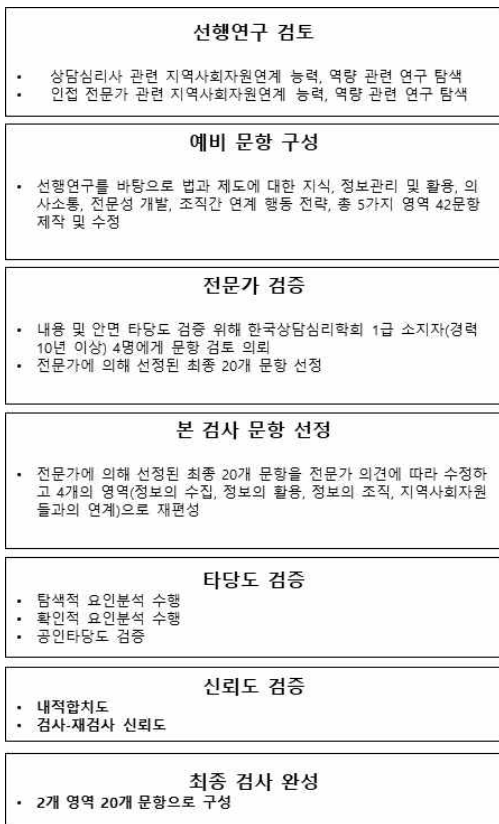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활용' 13문항, '의사소통' 7문항, '전문성 개발' 4문항, '조직간 연계 행동 전략' 15문항, 총 5개 영역의 42문항으로 제작하였다.

#### 최종문항 선정

총 5개 영역, 42개 문항으로 재편집한 예비 척도는 한국 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4명의 전문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해당 전문가는 문항들의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학교, 개인상담소,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들로 상담 최소 경력은 13년, 최고 경력은 16년이었으며, 4명 중 3명은 주수퍼바이저였고 1명은 상담심리 전공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겸임교수였다. 4명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각 문항이 얼마나 타당한지 객관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Likert 5점 형식(1점: 전혀 타당하지 않음 ~ 5점: 매우 타당함)의 42개 문항을 각 전문가들에게 제공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적합도 측정과 더불어 추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전문가들에게서 수집한 자료와 추가 의견을 토대로 평균 4점 미만의 문항들은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4개 영역(정보의 수집, 정보의 활용, 정보의 조직, 지역사회자원들과의 연계), 2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본 연구에 활용될 최종 문항 20개가 선정되었고, 이 문항은 답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앙점이 없는 Likert 6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⑥ 매우 그렇다')로 제작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문항을 선정한 연구진 1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및 한국학교심리학회 학교심리사 1급, 한국상

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연구진 2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을 완료하고 5년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꽃동네대학교의 IRB를 통과한 후 수행되었다. 두 연구진들은 IRB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연구자교육과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시행하는 윤리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

#### 본 연구의 대상 및 연구 절차

최종적으로 수정작업을 거쳐 선정된 문항은 구글 닥스 프로그램으로 설문지화 되어,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표집 방법은 눈덩이 표집으로 총 317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고, 이중 불성실 반응이나 설문 자격이 없는데도 응답을 한 설문지 11개를 제외하여 총 306개의 설문이 통계 처리에 활용되었다.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은 주요 학회 및 국가 자격증으로 제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심리상담사(또는 전문상담사) 1급, 2급,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급,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2급, 청소년 심리상담사 1급, 2급, 3급, 연구진 및 상담전문가들이 공인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상담 관련 자격증들이다. 구글 닥스로 제공된 설문지는 연구 설명서, 연구 동의서, 연구 척도로 이루어졌고, 설문지를 작성해준 참여자들에게는 모두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심리상담사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심리상담사들의 인구사회학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06

	항목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42	13.7
	여성	264	86.3
연령	20세~30세 미만	37	12.1
	30세~40세 미만	155	50.7
	40세~50세 미만	93	30.4
	50세~60세 미만	17	5.6
	60세 이상	4	1.3
최종학력	2년제 대학 졸업	6	2.0
	4년제 대학 졸업	62	20.3
	대학원 석사 이상(재학, 수료, 졸업)	183	59.8
	대학원 박사 이상(재학, 수료, 졸업)	55	18.0
자격증	심리상담사(또는 전문상담사) 1급, 또는 1급에 준하는 심리상담관련 민간 자격증	54	17.6
	심리상담사(또는 전문상담사) 2급, 또는 2급에 준하는 심리상담관련 민간 자격증	150	49.0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6	2.0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11	3.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6	2.0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2	.7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23	7.5
	청소년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7	2.3
	청소년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31	10.1
	청소년심리상담사 3급 자격증	13	4.2
	기타	3	1.0
	상담경력	1~3년	84
4~6년		109	35.6
7~9년		66	21.6
10~12년		21	6.9
13~15년		14	4.6
16년 이상		12	3.9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06 (계속)

	항목	빈도(n)	백분율(%)
활동지역	서울	142	46.4
	경기도	94	30.7
	충청도	27	8.8
	강원도	8	2.6
	전라도	6	2.0
	경상도	24	7.8
	제주도	1	.3
	기타	4	1.3
	근무기관	대학소속 상담센터부설(대학 부설 외부 상담센터,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등)	60
공공상담기관(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80	26.1
교육청 Wee센터, Wee클레스(초, 중, 고등학교 상담실)		33	10.8
사설 상담센터		73	23.9
기업 상담실		17	5.6
병원 치료실		18	5.9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20	6.5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기관		5	1.6
고용형태		정규직 전일제(full-time) 상담	96
	계약직 전일제(full-time) 상담	21	6.9
	무기 계약직 전일제(full-time) 상담	33	10.8
	계약직 시간제(part-time) 상담	119	38.9
	임시직 전일제(full-time) 상담	32	10.5
	기타	5	1.6

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성'이 86.3%(264명)로 '남성' 13.7%(42명)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령은 '30세~40세 미만'은 50.7%(155명), '40세~50세 미만'은 30.4%(93명), '20세~30세 미만'이 12.1%(37명), '50세~60세 미만'은 5.6%(17명), '60세 이상'은 1.3%(4명)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석사 이상(재학, 수

료, 졸업)'이 59.8%(183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졸업'이 20.3%(62명), '대학원 박사 이상(재학, 수료, 졸업)'이 18.0%(55명), '2년제 대학 졸업'이 2.0%(6명)로 각각 나타났다.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심리상담사(또는 전문상담사) 2급, 또는 2급에

준하는 심리 상담관련 민간 자격증'이 49.0% (150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심리상담사(또는 전문상담사) 1급, 또는 1급에 준하는 심리 상담관련 민간 자격증'이 17.6%(54명), '청소년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이 10.1%(31명),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이 7.5%(23명), '청소년 심리상담사 3급 자격증'이 4.2%(13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이 3.6%(11명), '청소년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이 2.3%(7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이 2.0%(6명),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이 2.0%(6명),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같은 '기타 자격증'이 1.0%(3명),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이 0.7%(2명)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연구참여자가 자격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주요' 자격증 한 개만 선택하게 하였다.

심리상담사들의 상담경력은 '4년~6년'이 35.6%(109명), '1년~3년'이 27.5%(84명), '7년~9년'은 21.6%(66명), '10년~12년'이 6.9%(21명), '13년~15년'이 4.6%(14명), '16년 이상'이 3.9%(12명)이었다. 또한, 심리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소재 지역으로는 서울이 46.4%(142명)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30.7%(94명), '충청도'가 8.8%(27명), '경상도'가 7.8%(24명), '강원도'가 2.6%(8명), '전라도'가 2.0%(6명),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기타 지역'이 1.3%(4명), '제주도'가 0.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으로 연구 대상자의 26.1%(80명)가 '공공상담기관(시군구 청소년 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설 상담센터'에서는 23.9%(73명), '대학소속 상담센터부설(대학 부설 외부 상담센터,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등)'에서는 19.6%(60명), '교육청 Wee센터, Wee클

레스(초, 중, 고등학교 상담실)'에서는 10.8%(33명),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에서 6.5%(20명), '병원 치료실'에서는 5.9%(18명), '기업 상담실'에서는 5.6%(17명), '시민단체 및 종교 단체기관'에서는 1.6%(5명)가 근무하고 있었다.

고용형태는 '계약직 시간제(part-time) 상담'이 38.9%(11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규직 전일제(full-time) 상담'이 31.4%(96명), '무기 계약직 전일제(full-time) 상담'이 10.8%(33명), '임시직 전일제(full-time) 상담'이 10.5%(32명), '계약직 전일제(full-time) 상담'이 6.9%(21명), 임시직 시간제나 봉사직, 프리랜서와 같은 '기타'가 1.6%(5명)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총 2개 영역 2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조를 검증하고 설문 시 함께 제공했던 다른 척도의 문항들을 통해 공인타당도도 산출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신뢰도 파악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분석하고, 2주 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 결 과

###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심리상담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추출은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요인회전은 사각회전인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자료의 적합성을 말해주는 KMO(Kaiser-Meyer-Olkin) 값이 .944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가 근사  $\chi^2$  값 4110.451( $df=190, p < .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개의 요인구조가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제외된 문항이 없어 총 20문항이 모두 그대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지역사회자원 정보의 수집과 활용'으로 지역사회 정보들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조직과 지역사회 기관 자원들에로의 연계 관련 문항 8개로 구성되었고, '지역사회기관 활용과 연계'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공통성	설명량 (고유값)
요인 1	10	나는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를 상담에 활용한다.	.805	.642	50.425 (10.085)
	11	나는 내담자를 돕기 위한 기관의 시설이 미비할 시, 타기관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게 한다.	.729	.424	
	3	나는 지역사회자원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729	.599	
	8	나는 지역사회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있다.	.717	.662	
	12	나는 상담 중 또는 종결 시 내담자에게 후속 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기관을 알려준다.	.697	.376	
	9	나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활용한다.	.685	.621	
	6	나는 지역사회자원 기관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676	.539	
	1	나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연관된 사회제도와 법을 알고 있다.	.629	.478	
	5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자원의 이용 자격과 방법 등을 알고 있다.	.620	.617	
	2	나는 평소에 지역사회자원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한다.	.615	.576	
	7	나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조사, 발굴, 개발한다.	.596	.538	
	4	나는 지역사회자원과 관련된 지식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590	.592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계속)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공통성	설명량 (고유값)
	19	나는 지역사회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또는 참여한다.	-.873	.652	
	18	나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한다.	-.850	.749	
	17	나는 지역사회 심리상담 유관기관 모임을 알고 있고, 이들의 활동에 참여한다.	-.814	.632	
요인 2	15	나는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망을 구축한다.	-.567	.619	10.077 (2.015)
	14	나는 지역사회자원 목록을 연 1회 이상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	-.541	.522	
	16	나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 관련 지역사회기관의 서비스 담당자와 상호 협력한다.	-.539	.472	
	20	나는 내담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중복 이용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463	.439	
	13	나는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자원 목록 작성에 노력한다.	-.462	.496	

로 명명하였다. 더불어 요인 1과 요인 2의 상관관계는 .695( $p < .001$ ) 였다.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심리상담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 척도를 ‘지역사회자원 정보의 수집과 활용’과 ‘지역사회기관 활용과 연계’ 2개의 하위요인으로 고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타당한지를 재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기저 모형과의 비교인 상대적 적합도 지수 NFI, CFI, TLI와 자료 자체의 부합성에 대한 절대적 적합도 지수 GFI, AGFI,

RMSEA를 선정하였다(홍세희, 200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chi^2(169)=673.935, p < .001, NFI=.987, CFI=.992, TLI=.985, GFI=0.978, AGFI=0.942, RMSEA=.073$ 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타당도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종운(2016)과 윤하연(2016)의 지역사회자원연계 관련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종운(2016)의 척도 총 23문항과 윤하연(2016) 척도의 총 13 문항,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심리상담사의 지역

표 4.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의 공인타당도

	1	2	3	4	5	6	7	8	9	10	11
1 자원개발역량척도 (이종운, 2016)	-										
2 가치	.606***	-									
3 태도	.891***	.436***	-								
4 기술	.894***	.448***	.702***	-							
5 지식	.791***	.270***	.627***	.632***	-						
6 자원연계활성화척도 (윤하연, 2016)	.713***	.366***	.572***	.652***	.685***	-					
7 정보화수준	.630***	.361***	.501***	.597***	.552***	.937***	-				
8 자원관리정도	.641***	.265***	.521***	.550***	.704***	.809***	.552***	-			
9 지역사회자원 연계척도	.642***	.344***	.583***	.509***	.618***	.613***	.470***	.671***	-		
10 지역사회자원 정보의 수집과 활용	.587***	.391***	.528***	.478***	.495***	.574***	.476***	.567***	.936***	-	
11 지역사회기관 활용과 연계	.597***	.227***	.548***	.458***	.659***	.553***	.380***	.680***	.904***	.695***	-

\*\*\*  $p < .001$ .

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 20문항의 공인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이종운(2016)과 윤하연(2016)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해당 척도들에 자원봉사자나 기부자, 홍보전략 등 사회복지 기관에 특화된 문항도 정보 수집, 활용, 인프라 구성과 같이 심리상담사가 사용하면 좋은 문항도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세 척도 간의 Pearson Correlation 분석 결과, 상관계수( $r$ )는 .265 ~ .937 수준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의

공인타당도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 내적 합치도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내적합치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의 내적 합치도는 .932였고, 요인 2의 내적 합치도는 .905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4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문항수	Cronbach's $\alpha$	
요인1	지역사회자원 정보의 수집과 활용	12	.932
요인2	지역사회기관 활용과 연계	8	.905
전체		20	.946

검사-재검사 신뢰도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파악하기 위해 본 검사에 참여했던 20명의 심리상담사에게 2주 후 검사 재실시를 요청했다. 그리고 20명의 심리상담사가 모두 재검사에 응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검사-재검사 상관계수( $r$ )는 .720~.84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높은 시간적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 척도

에 활용된 306명의 응답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요인 1의 최소점수는 12점, 최대점수는 72점이며 요인 2의 최소점수는 8점, 최대점수는 48점이다. 전체점수의 최소점수는 20점이고, 최대점수는 120점이다. 요인 1의 경우 남성이 48.405점으로 여성 48.265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전체 평균 48.284점보다도 높은 점수이다. 더불어 요인 2의 점수도 남성 31.548점, 여성 27.856점으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요인 2의 남녀 전체 평균 점수 28.362보다도 높은 점수이다. 역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남성이 정보의 수집과 활용, 조직과 연계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으나,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표 6.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 척도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첫 번째 검사		두 번째 검사		평균차이	$r$
	$M$	$SD$	$M$	$SD$		
요인 1. 지역사회자원 정보의 수집과 활용	47.100	8.601	47.000	9.453	0.1	.720**
요인 2. 지역사회기관 활용과 연계	27.400	7.708	29.050	7.470	1.65	.840**
전체	74.500	15.440	76.050	16.175	1.55	.830**

\*\*  $p < .005$ .

표 7. 전체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전체 (N=306)		남 (N=42)		여 (N=264)	
	$M$	$SD$	$M$	$SD$	$M$	$SD$
요인1	48.284	9.279	48.405	9.716	48.265	9.226
요인2	28.362	7.644	31.548	6.893	27.856	7.647
전체	76.647	15.590	79.952	15.894	76.121	15.507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해석은 매우 주의해야 하겠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 탐색, 요인 분석, 상관분석 등이 사용되었고 최종적으로 2 요인, 20문항이 개발되었다. 애초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2요인, 각각 12문항, 8문항으로 도출되었다.

도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문항 선정의 기반이 된 선행연구 9개에서 심리상담사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된 42개의 문항이 연구진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후 연구진은 이 문항들을 심리상담사에 맞게 문장을 약간 수정하였고, 그 내용에 맞게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 3문항, ‘정보관리 및 활용’ 13문항, ‘의사소통’ 7문항, ‘전문성 개발’ 4문항, ‘조직간 연계 행동 전략’ 15문항, 총 5개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이 문항들은 각각 5점 리커트 형식으로 만들어져 4명의 심리상담 전문가들에게 보내졌다.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각 척도에 적합도 점수를 부여함과 동시에 각 문항에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42개 문항 중 ‘내용 중복’, ‘내용의 막연함’, ‘심리상담사의 역할 이상의 업무’, ‘정의의 모호성에 의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개념적 상충’, ‘현실적 어려움’ 등의 피드백을 받은 문항과 ‘적합성 점수 4점 미만인 문항이 대거 탈락하였고, 최종적으로 20개 문항만 남게 되었다.

삭제 이유의 가장 많은 비율은 내용 중복이었다. 의사소통이나 전문성 개발 영역의 경우, 해당 영역에 포함된 내용이 정보관리나 활용, 조직 연계 등의 내용과 겹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 전부터 문항과 영역이 줄어들 수 있음이 예상되었다. 실제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만 도출되었는데, 요인을 가른 기준이 되는 것은 ‘활동 수준’이었다. 즉, 첫 번째 요인은 심리상담사가 개인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자원을 찾고 사용하는 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두 번째 요인은 심리상담사가 지역사회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실제적인 연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의 핵심이 지역사회자원의 탐색, 수집, 정보 제공에 맞추어져 있다면, 두 번째 요인은 그 핵심이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모임의 참여와 활성화, 유관기관 리스트 작성과 업데이트에 있다. 이를 근거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고, 그 적합도가 양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개 영역과 20개 문항이 결정되었다. 각 영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인 ‘지역사회자원 정보의 수집과 활용’ 영역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파악과 수집,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자원의 위치, 그 정보가 있는 장소, 사용 방법, 접근성, 탐색·조사·발굴에 대한 노력, 습득된 정보의 양, 실제 상담에서의 활용 정도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주의 기울임과 그것의 활용에 대한 것으로, 지역사회자원의 기초적인 능력이라 볼 수 있다(이종운, 2016).

반면, 두 번째 요인인 ‘지역사회기관 활용과



연계' 영역은 타 기관들과의 사업 연계, 유관 기관에서의 직접 참여, 자원 연계망 구축, 지역사회 자원 목록 업데이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요인보다는 더 숙련된 기술이자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요인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숙지되어야 두 번째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심리상담사가 고용되어있는 기관에 따라 두 번째 요인이 더 발달 될 수도 있다. 두 요인의 점수가 모두 높은 것은 그만큼 심리상담사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능력이 뛰어나며 숙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이 높은 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가 개념화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척도가 이종운(2016)과 윤하연(2016) 척도와 다른 점은 사회복지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했다는 것, 정보 수집, 활용, 인프라 구축과 연관된 문항을 더 상세하게 만들었다는 것, 실제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나 특성을 바탕으로 문항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심리상담사들의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을 보기 위해 일부 문항을 억지로 변형하거나 빼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요인과 문항 내용을 보았을 때, 본 척도는 심리상담사들의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관련된 교육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자원 활용 교육에는 지역사회자원의 종류, 정보 접근법, 자원 이용법, 지역사회기관 연계법, 연계 상황, 이용 자격, 기관 네트워크 방법, 공동사업 추진 방법, 지역사회기관 담당자의 관리법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겠고, 이는 요인 1과 요인 2의 내용에 따라 모듈형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상담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처음으로 제작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심리상담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 척도는 심리상담 현장에서 자원 개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사회자원연계 능력이 요구되는 학교 현장이나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심리상담사의 역량 파악과 선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본 연구는 보다 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해 더 많은 상담 심리 종사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317명이었지만, 상담 종사자의 대표성을 위해 더 광범위하고 많은 수의 표본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의 표집 대상 중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42명, 여성인 경우는 264명이었다. 이러한 성비의 차이는 상담 현장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척도의 일반화를 위해 더욱 균형 잡힌 성비의 표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생애 타당도의 확보를 위해 실제 다양한 장면에서의 적용 연구가 필요하겠다.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관 내 심리상담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상담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활용하고, 그 결과들을 통해 본 척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심리상담사들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능력 파악 척도를 만들

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척도는 자원연계가 필요한 모든 상담 시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통해 심리상담사들의 역량 강화와 그를 위한 교육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강유리 (2012). 심리상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구장희, 안도희 (2015).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 기본심리육구 및 학교 참여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11), 21-44.
- 권해수, 류진아 (2007). 학교 기반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8(3), 1205-1221.
- 김동일, 윤현선, 서창원, 최수미(200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CYS-Net) 운영평가 연구. 상담학연구, 9(4), 1769-1783.
- 김성욱 (2008). 학교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지역사회자원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주대학교 대학원.
- 김언순, 민혜리, 이 영 (2018). '학교-지역사회 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자원 활용방안: 서울시 동북지역 2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2), 83-107.
- 김지연 (2001).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중심으로 한 학교사회복지 모형개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태섭 (2016). 지역사회 자원교류를 통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조직효과성 증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혜미, 오인수 (2016). 숙련상담자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 분석. 상담학연구, 17(5), 159-180.
- 김희은, 고혜정, 김동일, 최수미 (2019). 장애학생 상담지원에 대한 연구동향과 지원방안. 아시아교육연구, 20(3), 831-852.
- 류기형 (2006). 의료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류진아, 권해수 (2008). 학교 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연계 학교상담모형 효과연구. 한국교육방법학회, 20(1), 131-153.
- 박미진, 현안나 (2017). 지역사회복지관 조직풍토와 사회복지사의 자원연계기술과의 관계: 성찰적 사고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8(2), 203-231.
- 박성현, 화순영, 장우영 (2013). 전문상담교사의 장애 상담 지원 실태 및 인식.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341-360.
- 박영순, 김윤희, 조민석 (2019). 소년범에 대한 다중체계치료(Multisystemic Therapy) 사례연구. 인지행동치료, 19(2), 179-204.
- 박지혜, 하정희 (2020).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의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8(1), 315-338.
- 배경희 (2006) 의료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배현순 (2019). 교사가 인식한 분산적 리더십이 정서경험, 지역공동체의식을 매개로 자원연계활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

- 대학교 대학원.
- 손병덕 (2015). 주제발표 3: CYS-Net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의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2015(2), 55-72
- 어윤강 (2014). 의료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관계가 자원연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옥정달, 우주영, 윤병천, 박민 (2018). 상담, 자문, 기관지원이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1(1), 1-18.
- 윤하연 (2016). 지역아동센터의 자원연계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이강 (2004). 지역사회 정신보건조직의 연계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병환, 강대구 (2014).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행동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0(3), 125-148.
- 이용주, 박근영 (2018). 교정시설 내 수용자 심리상담 지원 강화 방안 모색. 교정상담학연구, 3(2), 83-97.
- 이은하, 한희영, 서인국, 유미숙 (2017). 초등학교 파견 놀이치료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대학교 지역사회 전문자원 연계 상담. 한국놀이치료학회, 20(1), 81-103.
- 이종운 (2016). 사회복지사의 자원개발역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현숙 (2005).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연계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임은미 (2014). 학교상담에서의 연계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 아시아교육연구, 15(1), 217-246.
- 장성태 (2003).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에 서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장암미, 안도희 (2015). 부모 및 교사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17(2), 951-967.
- 정성기 (2002).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연계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정현주 (2015). 학교폭력 관련기관들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경험 연구 - CYS-Net · 학교 ·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학교사회복지, 32, 247-279.
- 조현경, 김재철 (2014).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22, 81-102.
- 최은숙, 전경숙 (2016). 한국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근로환경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5(4), 300-310.
- 홍남희 (2013). 위기 청소년과 지역사회 자원: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24, 54-63.
- Cox, A. A. & Lee, C. C. (2007). *Challenging educational inequities: school counselors as agent of social justice*, ACA.
- DeBord, K., Jakes, S., & Guin, A. (2010). When the Quick Fix Doesn't Work: Evaluating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on Child Abuse. *Journal of extension*, 48(5). Retrieved from <http://www.joe.org/joe/2010october/a7.php>
- Malcolm, M., Shellman, J., Elwell, J., & Rees, C. (2017). GOT! Care: preparing the emerging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healthcare workforce for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ve Practice: a pilot study. *Health  
Interprofessional Pract*, 3(2), 2159-1253.

원 고 접 수 일 : 2020. 09.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0. 11. 02.

최종게재결정일 : 2020. 11. 18.

## Development of Community Resources Linkage Capability Scale of Counselors

**Seul-Ah Seong**

Daum Counseling center  
Counselor

**Seong-Hoon Ba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kottongnae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and investigat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cale that can measure linkage capability of community resources of counselors. This study prepared a preliminary question consisting of a total of 42 questions in 5 areas. Then, the content validity and facial validity were verified by the counseling experts with a first-degree qualification as a counselor in Korean Counsel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a total of 20 final questions of 4 areas. The final questions were conducted on psychological counselors(N=306) to investigate reliability and validity.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lidity of the two-factor structure have been verified. And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wo factors were shown to be appropriate. The two-factors were named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Association with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lso, the scale of final selection of questions were found to have a good degree of concurrent validity, interitem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a measure of community resources linkage capability scale of counselors. In addition, this scale is expected to be useful in Wee Class, Wee Center,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and other counseling sites.

*Key words* : counselors, linkage of community resources, reliability, validity, Scale development